

국내 주요 일간지의 한방(보완)의료 관련 기사의 추세 분석

조경숙¹⁾, 박종구¹⁾, 김춘배^{1)†}, 이선동²⁾, 최서영³⁾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¹⁾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방의학교실²⁾

하나한방병원³⁾

Trend Analysis of Reports on Oriental (Complementary) Medical Care in Major Newspapers in Korea

Kyung Sook Cho¹⁾, Jong Ku Park¹⁾, Chun Bae Kim¹⁾,

Sun Dong Lee²⁾, Seo Young Choi³⁾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¹⁾

Department of Preventive Oriental Medicine, Sang J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²⁾

Hana Oriental Hospital³⁾

Abstracts

This study is conducted to evaluate the social concern of the related issues through trend analysis of reports on Oriental medical care in major domestic newspapers including Dong-a Ilbo, Hankook Ilbo, Chosunilbo, and JoongAng Ilbo. Materials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1,039 reports on Oriental medical care by internet search of each newspaper company's homepage from Jan 1, 1993 to Dec 31, 1999. Two researchers analyzed the trend of report contents on Oriental medical care by publication year.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The most frequent subject in these reports related to Oriental medical care was "disease", appearing in 45.5% (473) of the reports, followed by "oriental health system (31.5%)" and "oriental medical facilities (16.5%)". Also, topics on the collaborative efforts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al care were reported in 7.9% of the cases. According to a survey of the opinions held for the contents in these reports, 51.0% reports held neutral views while 48.2% and only 0.8% reports had favorable and negative views, respectively.

* 이 연구는 1999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정책과제: HMP-99-P-002)' 지원에 의한 것임.

In conclusion, the reports covering Oriental medical care in major domestic newspapers have increased in recent times and many held favorable views. Considering the widespread influence of mass-media, the government and health-related organizations must continuously monitor the opinions in daily newspapers, for the opinions are the influencing force of health-related behaviors and changes. In this light, these organizations should enforce the health policy on strategies for mutual development of Western and Oriental medicine in Korea.

Key Words: Trend analysis, Newspaper, Oriental medical care

서 론

1. 연구배경

지난 수 십년간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와 1989년부터 실시한 전국민의료보험은 국민의 의료수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례로 1985년의 의료보험 수진율은 연간 1인당 2.88건이었는데, 1990년 3.23건, 1995년에는 3.87건, 1998년에는 5.32건으로 급증하였다.^{1) 2)} 또한 1970년대를 전후로 상병구조가 급성전염성질환에서 만성퇴행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된 데다가 교육수준 향상과 의료정보의 공유로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 불어닥친 대체의학의 열풍은 우리 나라 국민의 한의학 및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게 되었다.³⁾ 그러나 우리 나라의 한방의료는 서구사회의 대체의료와 달리 양방의료와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결국 한·양방의료 이원화체계는 환자의 시장보기(hospital shopping) 의료이용행태를 유발시키게 되어 의료비 증복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4) 5)}

이런 한의학 및 한방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사회적 관심은 단순히 의료이용량의 변화^{주1)} 및 정부의 정책변화^{주2)} 뿐 아니

라 관련 학계에서 발표되는 연구논문들^{6), 7), 8)}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적 사안에 민감하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각종 언론매체 기사의 내용분석은 한의학 및 한방의료제도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된다 하겠다. 이 중 주요 일간지의 한방의료 관련 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 한방의료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주요 4대 일간지의 한방의료^{주3)} 관련 기사의 내용을 분석함으로

가하여, 양방의료기관 이용의 증가보다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의료보험통계연보, 1999).

주2)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나라는 1994년에 한국한의학연구소(1997년 11월 24일 이후 한국한의학연구원)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하였고, 1996년 11월에는 의정국 한방의료담당관실을 한방의료정책관실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는 한방치료 기술개발연구지원사업(2010 프로젝트)을 추진함으로써 한의학의 발전 및 세계화에 노력을 기하고 있고(보건복지부, 1999), 2000년에 새로이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6150호)의 제49조에 한방의료의 육성·발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주3) 보완·대체의료(기존 서양의학체계를 대체하는 다양한 보건의료기술들을 통칭하며, 대체의학, 보완의학, 민족의학, 비정통의학,

주1) 양방의료기관 수진율은 1990년 3.23건에서 1995년 3.87건, 1998년 5.3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한방의료기관 수진율은 1990년 0.039건에서 1995년 0.167건, 1998년 0.311건으로 증

써 한방의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정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6년간 우리나라 4대 일간지의 한방의료 관련 기사 내용의 연도별 경향을 분석한다. 둘째, 한방의료 관련 기사 중에서 한·양방 상호보완에 관한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 및 연도별 경향을 분석한다. 셋째, 한방의료 관련 기사 중에서 외국의 한방의료에 관한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 및 연도별 경향을 분석한다. 넷째, 한방의료 관련 기사를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그에 관한 연도별 경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선정

이 연구의 대상 언론매체로 우리나라에서 발간되고 있는 일간지중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및 한국일보를 선정하였다. 인터넷 검색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993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1994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관련 기사를 검색하였다. 자료검색은 2000년 1월 3일부터 1월 14일까지 2명의 조사원이 수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각 신문사별 기사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방, 한의학, 대체의학, 한약 등, 한방관련 주요 검색어(key words)를 이용하여 제목중심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자료 중에서 동일신문사내 중복 기사는 제외하였다.

2. 평가 및 분석방법

2명의 연구자가 수집된 기사들의 주제를 다음의 내용분석 지침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분류하였다. 기사 평가시 두 연구자

간 일치율은 92.5%이었고, 불일치한 항목은 최종 협의를 거쳐 조정하였다.

먼저, 기사의 주제를 크게 질병 관련 기사, 병의원 관련 기사, 제도 관련 기사 및 기타로 나누었다. 이중 질병 관련 기사는 약, 치료법, 대체요법, 한·양방 상호보완, 건강증진, 민간요법, 질병 소개 등으로, 병의원 관련 기사는 협진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원, 무료진료 강좌, 협진 실시, 보건소 등으로, 제도 관련 기사는 한방의료보험, 한·약분쟁, 교육, 의료체계, 보건복지부 업무 등으로, 기타는 한·양방 교류, 한의학 박람회, 의료봉사, 인물동정 등으로 세분류하였다.

둘째, 전체 기사중 외국의 한방의료에 관한 기사 46건은 해당 국가를 조사하였다.

셋째, 전체 기사중 한·양방 상호보완에 대한 기사 83건을 협진제도, 협진병원, 협진치료, 일원화, 보완의학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한·양방 상호보완에 대한 견해를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세 가지로 평가하여 분류하였는데, 여기서 '긍정적 기사'란 한의학의 치료효과 및 제도적 장점 등을 기사화한 것으로, '중립적 기사'란 한의학 및 한방의료에 대해 현상만을 사실적으로 진술한 기사로, '부정적 기사'란 한의학의 치료효과 및 제도적 부작용을 기사화한 것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도별 추세분석을 포함한 기술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1. 한방의료 관련 기사의 내용 분석 결과

우리 나라 4대 일간지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의 한방 관련 기사를 수집한 결과,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의 기사는 5년간 각각 251건, 136건이 검색되었으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는 6년간 각각 247건, 405건이 검색되어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총 1,039건이었다(표 1).

비전통의학 또는 전인의학등 여러 용어로 혼용) 포함5)

<표 1> 자료의 일반적 특성

연도	단위: 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계
1993	11(4.5)	121(29.9)	-	-	132(12.7)
1994	14(5.7)	47(11.6)	7(2.8)	11(8.1)	79(7.6)
1995	22(8.9)	24(5.9)	33(13.1)	16(11.8)	95(9.1)
1996	103(41.7)	63(15.6)	53(21.1)	29(21.3)	248(24.0)
1997	30(12.1)	55(13.6)	6(2.4)	30(22.1)	121(11.6)
1998	33(13.4)	32(7.9)	87(34.7)	23(16.9)	175(16.8)
1999	34(13.8)	63(15.6)	65(25.9)	27(19.9)	189(18.2)
합계	247(100.0)	405(100.0)	251(100.0)	136(100.0)	1,039(100.0)

가. 한방의료 관련 기사 내용의 유형
 기사의 주제를 대분류하여 본 결과(표 2), 질병 관련 기사가 473건으로 전체 기사의 45.5%를 차지하였으며, 제도관련 기사 327건(31.5%), 병원 관련 기사 171건(16.5%), 기
 <표 2> 한방의료 관련 기사의 주제

대분류	단위: 건(%)	
	세분류	소계
건강(질병) 관련 기사	치료법	193(40.8)
	건강증진	70(14.8)
	질병에 대한 설명	66(14.0)
	약	50(10.6)
	대체요법	47(9.9)
	한·양방 상호보완(한방+양방)	22(3.2)
	질병예방	14(3.0)
	민간요법	8(1.7)
	기타	3(.6)
제도 관련 기사	한·약분쟁	210(64.2)
	교육	62(19.0)
	한방의료보험	23(7.0)
	복지부 업무 등 관련	20(6.1)
	의료체계	7(2.1)
	기타	5(1.5)
병원 관련 기사	협진 또는 한방병원 개원	67(39.2)
	무료진료 강좌	45(26.3)
	협진 실시	32(18.7)
	보건소	24(14.0)
	기타	3(1.8)
기타	한의학 박람회	16(23.5)
	의료봉사	14(20.6)
	인물동정	13(19.1)
	한·양방 교류	4(5.9)
	기타	21(30.9)
합계		1,039(100.0)

타가 68건(6.5%)이었다. 질병관련 기사를 세분류해 보면, 치료법에 관한 내용이 193건(40.8%)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증진 70건(14.8%), 질병에 대한 설명 66건(14.0%), 약 관련 50건(10.6%) 등의 순이었다. 병의원 관련 기사의 경우 협진 또는 한방병의원 개원에 관한 기사가 67건(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료진료 강좌 45건(26.3%), 협진실시 32건(18.7%), 보건소 관련 기사 24건(14.0%)이었다. 제도 관련 기사의 경우 한·약분쟁과 관련된 기사가 210건으로 64.2%나 차지하였으며, 교육관련 기사가 62건(19.0%), 한방의료보험 23건(7.0%), 복지부 관련 기사 20건(6.1%) 등이었다. 그리고 기타에는 인물동정, 한·양방 교류, 의료봉사 등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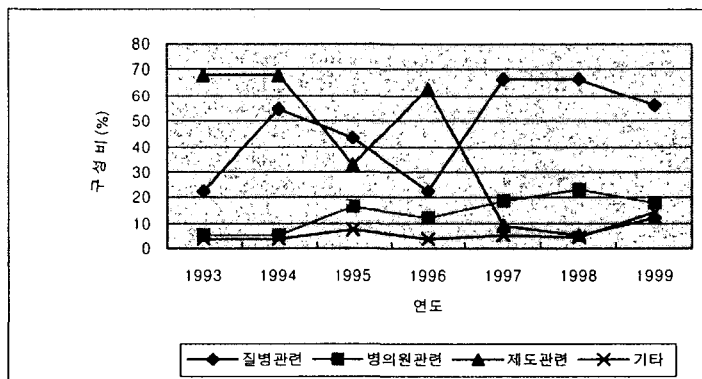
었다.

연도별로 한방의료 관련 기사의 주제를 대분류해 보면 게재건수가 1993년 132건, 1994년 79건, 1995년 95건, 1996년 248건, 1997년 121건, 1998년 175건, 1999년 189건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특히, 1996년에 두드러지게 기사가 많이 게재되었다(표 1). 그 이유는 1993년부터 시작된 한·약분쟁이 정점을 이루었던 1996년에 제도 관련 기사가 62.5%를 차지하는데 기인한다(표 3). 병의원 관련 기사는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으나, 1993년 5.3%에서 1999년에는 18.0%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질병 관련 기사의 비중은 1993년 22.7%에서 1999년 56.1%로 약 2.5배 가량 증가하였다(표 3, 그림 1).

<표 3> 연도별 기사 주제의 대분류

내 용	단위: 건(%)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질 병 관 련	30(22.7)	43(54.4)	41(43.2)	55(22.2)	81(66.9)	117(66.9)	106(56.1)	473(45.5)	
제 도 관 련	90(68.2)	9(11.4)	31(32.6)	155(62.5)	11(9.1)	9(5.1)	22(11.6)	327(31.5)	
병 의 원 관 련	7(5.3)	21(26.6)	16(16.8)	29(11.7)	23(19.0)	41(23.4)	34(18.0)	171(16.5)	
기 타	5(3.8)	6(7.6)	7(7.4)	9(3.6)	6(5.0)	8(4.6)	27(14.3)	68(6.5)	
합 계	132(100.0)	79(100.0)	95(100.0)	248(100.0)	121(100.0)	175(100.0)	189(100.0)	1,039(100.0)	

* 조선일보, 중앙일보만 해당



<그림 1> 연도별 기사 주제의 대분류 비율

나. 외국의 한방의료에 관한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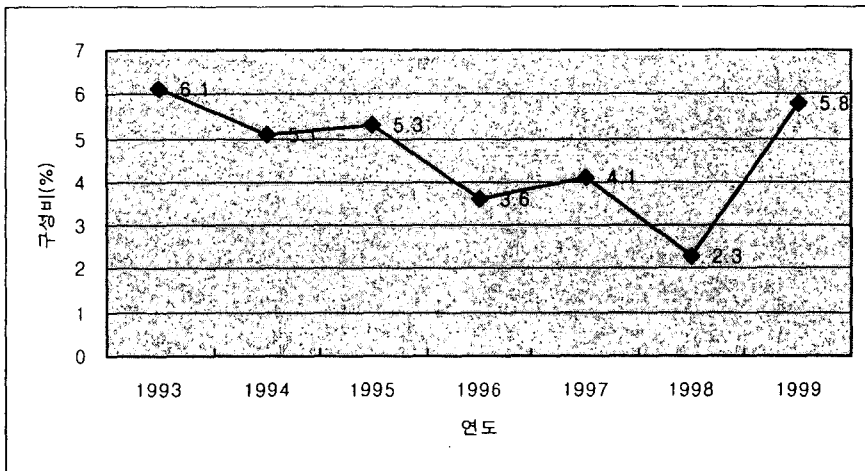
외국의 한방의료에 관한 기사는 전체 기사 중에서 4.4%(46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1993년이 6.1%로 가장 높았고, 계속 감소하다가

1999년에 다시 5.8%로 증가되었다(그림 2). 이를 관련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각각 26.1%씩을 차지하였다(표 4).

<표 4> 외국의 한방의료에 관한 기사의 연도별 게재 추세

단위: 건(%)

국	가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미	국	1(12.5)	1(25.0)	1(20.0)	2(22.2)	3(60.0)	2(50.0)	2(18.2)	12(26.1)
중	국	5(62.5)	2(50.0)	1(20.0)	2(22.2)	-	1(25.0)	1(9.1)	12(26.1)
일	본	-	1(25.0)	2(40.0)	2(22.2)	-	-	-	5(10.9)
북	한	-	-	-	1(11.1)	-	-	2(18.2)	4(8.7)
중	동	-	-	-	-	-	-	1(9.1)	1(2.2)
러	시	-	-	1(20.0)	1(11.1)	-	-	-	2(4.3)
몽	골	-	-	-	-	-	-	2(18.2)	2(4.3)
우	즈	-	-	-	1(11.1)	-	1(25.0)	-	2(4.3)
에	디	-	-	-	-	1(20.0)	-	-	1(2.2)
카	자	1(12.5)	-	-	-	1(20.0)	-	3(27.3)	5(10.9)
합	계	8(100.0)	4(100.0)	5(100.0)	9(100.0)	5(100.0)	4(100.0)	11(100.0)	46(100.0)



주: (외국관련기사/한방관련기사)×100

<그림 2> 연도별 외국의 한방의료에 관한 기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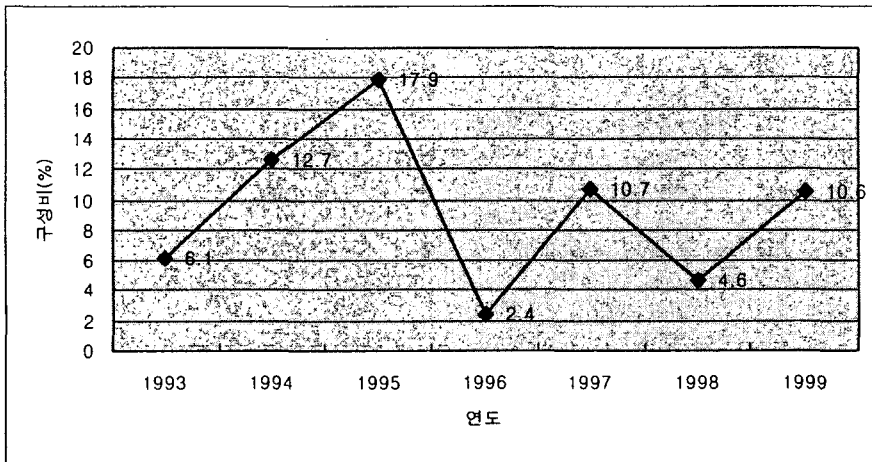
다. 한·양방 상호보완 관련 기사의 내용 분석

한·양방 상호보완 관련 기사는 전체 기사 중에서 83건으로 7.9%를 차지하였다. 이중 협진치료와 협진병원 개설 등에 관한 내용이 각각 41.0%와 39.8%를 차지하였다. 그 외 보완의학에 관한 내용이 5건이었고, 일원화에

관한 내용이 6건, 그리고 제도측면의 기사가 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1993년에 6.1%이었던 것이 1995년에는 무려 17.9%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1996년에는 급속도로 낮아져 2.4%에 불과하였고, 다시 점차로 증가하다 감소하는 톱니바퀴의 추세를 보였다(표 5, 그림 3).

<표 5> 연도별 한·양방 상호보완 관련 기사

								단위: 건(%)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전체(%)
협진병원	1(12.5)	5(50.0)	7(41.2)	1(16.7)	5(38.5)	5(62.5)	9(42.9)	33(39.8)
협진치료	2(25.0)	5(50.0)	9(52.9)	2(33.3)	6(46.2)	3(37.5)	7(33.3)	34(41.0)
일원화	4(50.0)	-	-	1(16.7)	-	-	1(4.8)	6(7.2)
협진제도	-	-	1(5.9)	2(33.3)	1(7.7)	-	1(4.8)	5(6.0)
보완의학	1(12.5)	-	-	-	1(7.7)	-	3(14.3)	5(6.0)
합 계	8(9.7)	10(12.2)	17(20.8)	6(7.3)	13(15.9)	8(9.7)	21(24.4)	83(100.0)



주: (한·양방 상호보완 관련 기사/전체기사)×100

<그림 3> 연도별 한·양방 상호보완 기사의 비율 변화

2. 한방의료 관련 기사 내용의 견해 평가

기사의 견해를 평가해 본 결과, 긍정적인 기사가 473건으로 전체 한방의료 관련 기사의 48.2%를 차지하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만을 제공한 경우가 501건으로 51.0%이

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경우는 8건으로 0.8%에 불과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3년과 1996년에 긍정적 기사가 각각 27.7%, 14.8%로 다른 연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1993년과 1996년의 주요 이슈가 한약분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6).

<표 6> 연도별 한방의료 관련 기사의 견해

								단위: 건(%)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긍정적	36(27.7)	42(54.5)	56(58.9)	35(14.8)	87(77.7)	122(73.9)	95(57.2)	473(48.2)
중립	93(71.5)	35(45.5)	38(40.0)	201(81.0)	23(20.5)	41(24.8)	70(42.2)	501(51.0)
부정적	1(.8)	-	1(1.1)	1(.4)	2(1.8)	2(1.2)	1(.6)	8(.8)
합 계	130(13.3)	77(7.8)	95(9.7)	237(24.1)	112(11.4)	165(16.8)	166(16.9)	982(100.0)

주제의 대분류별 견해를 보면, 질병 관련 기사중 긍정적 기사가 79.5%, 중립적 기사가 18.9%, 부정적 기사가 1.7%를 각각 차지하였다. 병의원 관련 기사중에는 긍정적 기사

55.3%, 중립적 기사 44.7%를 각각 차지하였다. 제도 관련 기사중에는 중립적 기사가 93.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7).

<표 7> 주제의 대분류별 견해

					단위: 건(%)
구 분	질병관련	제도관련	병의원관련	기타	합계
긍정적	333(79.5)	19(5.8)	94(55.3)	27(40.9)	473(48.2)
중립적	79(18.9)	309(93.9)	76(44.7)	39(59.1)	501(51.0)
부정적	7(1.7)	1(.3)	0(.0)	0(.0)	8(.8)
합 계	419(100.0)	327(100.0)	170(100.0)	66(100.0)	982(100.0)

주제가 한·양방 상호보완에 관련된 기사를 다시 세분류해 보면, 전체적으로 긍정적 기사가 83.1%, 중립적 기사가 16.9%였으며 부

정적 기사는 1건도 없었다. 이 중 협진병원 및 협진치료에 관한 기사의 경우 긍정적 기사가 각각 90.9%, 94.1%로 대부분이었다(표 8).

<표 8> 한·양방 상호보완 관련 기사의 견해

단위: 건(%)

구 분	협진치료	협진병원	일원화관련	보완의학	협진제도	합계
긍정적	32(94.1)	30(90.9)	2(33.3)	4(80.0)	1(20.0)	69(83.1)
중립적	2(5.9)	3(9.1)	4(66.7)	1(20.0)	4(80.0)	14(16.9)
부정적	0(.0)	0(.0)	0(.0)	0(.0)	0(.0)	0(.0)
합 계	34(100.0)	33(100.0)	6(100.0)	5(100.0)	5(100.0)	83(100.0)

고 찰

1.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보건의료 관련 기사를 분석 보고한 다른 연구의 조사대상을 보면, 김병익¹⁰⁾은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을, 김지미¹¹⁾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를, 그리고 하정훈 등¹²⁾은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를 각각 대상으로 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게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를 선정한 이유는 신문사의 신문 발행 역사^{주3)}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규모도 커서 독자층이 두텁고 독자에 대한 영향력 또한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13), 14)}

신문기사 내용분석을 위한 기사 수집방법은 신문 기사를 직접 보면서 관련 기사를 수집하는 전통적인 방법^{10), 11), 12)}과 언론 공용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주4)}를 사용하는 방법^{14), 15), 16), 17)}, 그리고 인터넷의 기사검색시스템을 통한 방법이 있다.¹⁸⁾ 이 연구에서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사의 시선 집중도 내지는 중요도를 살펴보기 어렵

다는 제한점이 있는데, 윤지희¹⁸⁾는 1년간의 기사내용을 분석하면서 3개월 치는 발행된 신문을 직접 보면서 기사의 시선 집중도를 고려하여 기사를 수집하였고, 나머지 9개월 치는 인터넷의 기사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 외에도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각 신문사별로 홈페이지를 방문한 뒤 기사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방, 한의학, 대체의학, 한약 등 한방의료 관련 주요 검색어를 이용하여 제목 중심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작업을 통해 중복 검색된 자료는 제외하였는데, 이로 인한 누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인터넷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사를 수집하다 보니 기사검색이 가능한 연도가 동일하지 않았다. 즉, 1993년에 한·약분쟁이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의 1993년 기사검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2. 연구결과에 관한 고찰

연도별 한방의료 관련 기사의 추이는 그해의 사회적 주요 사안을 반영해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도별로 한방의료 관련 기사건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1993년과 1996년이 두드러짐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한·약분쟁이 사회적으

주4) 동아일보 1920년, 조선일보 1920년, 한국일보 1954년, 중앙일보 1965년에 설립되었다.

주5) 우리 나라는 한국언론연구원 데이터베이스(KINDS)를, 미국은 NNI(National Newspaper Index)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로 커다란 이슈이었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한방제도 관련 기사의 비율이 1993년과 1996년에 각각 68.2%, 62.5%로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한편, 병의원 관련 기사의 경우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3년 5.3%에서 1999년 18.0%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질병 관련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3년 22.7%에서 1999년 56.1%로 약 2.5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처럼 한방제도 관련 기사보다 병의원 또는 질병 관련 기사가 꾸준히 증가하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의 증가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최근 한·양방 상호보완에 관한 관심이 의료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 결과 한방의료 관련 기사 중에서 한·양방 상호보완에 관한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6.1%에서 1994년 12.7%, 1995년 17.9%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1996년에는 한·약 분쟁이라는 커다란 이슈로 인해 2.4%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97년 10.7%, 1999년 10.6%로 다시 증가하였다. 한·양방 상호보완 기사 중에서 80% 이상이 협진치료 및 협진병원에 대한 소개였는데 이는 협진병원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추측된다. 조재국 등⁸⁾의 연구에 따르면 협진병원의 수가 1997년 54개에서 1999년 89개로 약 1.65배정도 증가하였다.

외국의 한방의료에 관한 기사는 전체 기사 중에서 4.4%(46건)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 50% 이상이 미국과 중국에 관한 기사였다. 이는 미국의 대체의학 열풍과 중국의 중의학의 영향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⁹⁾

기사의 견해를 평가해 본 결과, 긍정적인 경우가 48.2%, 중립적인 경우가 51.0%, 부정적 견해가 0.8%이었다. 그 중에서 질병 관련 기사는 79.5%가 긍정적이었고, 한·양방 상호보완 기사의 경우도 긍정적 기사가 83.1%나 되었다. 이를 보건의료와 관련된 신문기사의 내용을 분석한 다른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즉, 보건의료 관련 신문사설의 내용분석을 시도한 김영치¹⁰⁾

의 논문의 경우는 부정적 견해가 긍정적 견해의 2배 이상이나 되었고, 김병익¹⁰⁾의 연구에서도 보건의료 관련 사설의 경우 긍정적인 내용이 3.7%에 불과하였으며, 중립적인 경우가 19.0%, 부정적 내용이 무려 77.3%나 되었다.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주요 4대 일간지의 한방의료 관련 기사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방의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정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의 한방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3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문사별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검색 시스템으로 총 1,039건의 기사를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2명의 연구자가 수집된 기사의 주제를 내용분석 지침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분류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사의 주제를 대분류한 결과, 질병 관련 기사 473건(45.5%), 제도관련 기사 327건(31.5%), 병의원관련 기사 171건(16.5%), 기타 기사 68건(6.5%)이었으며, 연도별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은 병의원관련 기사였다. 둘째, 외국의 한방의료에 관한 기사는 46건으로 전체 한방관련 기사중 4.4%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에서 미국과 중국관련 기사가 각각 26.1%씩을 차지하였다. 셋째, 한·양방 상호보완 관련 기사가 82건으로 전체 기사 중에서 7.9%를 차지하였고, 이중 협진치료, 협진병원 개설 등에 관한 내용이 각각 41.5%, 40.2%였다. 연도별로 보면 1993년에 6.1%이었던 것이 1994년에 12.7%로 두 배이상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무려 17.9%나 되었으나 1996년에는 급속도로 낮아져 2.4%에 불과하였고, 다시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넷째, 기사의 견해를 평가해 본 결과, 긍정적, 중립적 그리고 부정적 기사가 각각 48.2%(473

건), 51.0%(501건), 및 0.8%(8건)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최근 들어 언론매체의 한방에 관한 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한·양방 상호보완에 관한 기사가 매우 긍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문매체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국내 신문사들은 한·양방 관련 의료기관의 자체 홍보나 과장된 기사의 제공보다는 국민의 한방에 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검증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와 각종 보건의료단체는 국민의 건강관련 행태에 영향을 주는 언론매체의 보도 추세를 모니터하여 이중한·양방 상호발전 도모에 필요한 이슈는 적극 검토하여 보건정책에 반영하도록 제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1990
2.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1999
3. 박종구 등. 동·서의학간 임상적 교류의 합리적 방안 구축.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1999
4. 이규식, 조경숙. 한방의료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전국 한의원 이용자를 중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1999; 9(4): 120-139
5. 박종구, 김춘배, 최서영, 김달래, 전세일, 이선동, 이종찬, 강명근, 조경숙. 보완 대체의학에 대한 시론. 보건행정학회지 2000; 10(1): 1-30
6. 이상영, 변용찬. 양한방 협진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7. 이원철. 「한·양방의료의 상호보완발전 방안 세미나 자료」(한·양방 협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경희대학교 1999. 7. 14.
8. 조재국, 이상영, 신수식, 변용찬. 양한방 협진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9
10. 김병익. 주요일간지의 보건의료관계사설 내용분석. 예방의학회지 1980; 13(1): 53-66
11. 김지미. 주요일간지의 건강관련 기사내용 분석.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85; 3(1):29-42
12. 하정훈, 김태관, 이재열, 박훈기, 이정권. 의료 부문에 관한 신문 독자투고의 내용 분석. 가정의학회지 1999; 20(3): 221-231
13. Welch M, Fenwick M, Roberts M. Primary definitions of crime and moral panic: A content analysis of experts' quotes in feature newspaper articles on crime. Th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997; 34:474-494
14. Lemmens PH, Vaeth PA, Greenfield TK. Coverage of beverage alcohol issues in the print media in the United States, 1985-1991.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99; 89: 1555-1560.
15. Gower DL. Health-related content in daily newspaper comic strips: A content analysis with implications for health education. Education 1995; 116: 37
16. 김영치. 보건의료정책과 언론전략. 199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 1996. 11. 22.
17. 안운옥. 일간지에 게재 보도된 의학, 의료 정보 내용의 분석. 대한의사협회지 1997; 40(9): 1208-1214
18. 윤지희. 일간신문의 병원관련 기사 분석 보고. 대한병원협회지 2000. 3·4; 83-96